

[Daniel Lee]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Eun Ja Kim] 저의 이름은 김은자입니다. 나이는 57 세입니다.

[Daniel Lee]언제 어디서 태어 났습니까?

[Eun Ja Kim] 1969 년 목포에서 태어났습니다.

[Daniel Lee] 어렸을 때 목포는 어떤 곳이었나요?

[Eun Ja Kim] 목포는 바다가 있는 항구 도시였고 산업화가 되지 않아서 발달이 많이 되지 않은 도시지만 약간은 시골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Daniel Lee] 가족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Eun Ja Kim]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부모님과 언니 오빠 동생 3 명 포함하여 8 식구였습니다.

[Daniel Lee]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삶과 일에 대해서 기억 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Eun Ja Kim] 아버지는 성실하게 직장생활하는 분이셨습니다. 직장에서 새벽에 비상 전화가 오면 새벽에도 전화를 받고 일을 할 정도로 성실하고 열심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친구관계가 좋고 인기가 많아서 외부 친교모임과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생활에 충실한 주부로서 6 남매를 사랑으로 양육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들을 맛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셨고, 주일이 되면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Daniel Lee] 당신의 부모님들은 교육이나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했습니까?

[Eun Ja Kim]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교육열이 높으신 분이셔서 학교 생활에 충실하기를 원하셨고 학교 학습에 열성적으로 참여해서 성적이 좋기를 바라셨습니다. 학교에도 지각하지 않고 가기를 원하셨고, 선생님에 대한 예의범절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학교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해야 미래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Daniel Lee] 부모님이 당신에게 가장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Eun Ja Kim] 교육열이 높으셔서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기를 원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셨고, 어른들에 대한 예의범절과 어른에 대한 인사성을 중요시했고, 나쁜 언어를

사용하면 엄하게 벌하셨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형제간의 우애롭게 잘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Daniel Lee] 당신의 부모님들은 형제 자매들에게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나요?

[Eun Ja Kim]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서상 큰 딸에 대해서 열성이 많았고 눈 높이가 높았고, 남자 한 명 뿐인 오빠에게 기대가 컸습니다. 또 한편으로 각자의 개성에 맞게 스포츠를 잘하면 지원해 주고 예술에 재능이 있는 동생들에게 그것에 맞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Daniel Lee] 당신은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요?

[Eun Ja Kim] 아버님은 밖에 생활로 분주하고 바쁘셔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은 어머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형제 자매 들 간에 우애가 좋고,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아 놀이도 많이 했고, 음식도 만들어서 같이 먹고 했습니다. 좋았던 추억들이 성장하는데 많았습니다.

[Daniel Lee] 학교에 관한 가장 처음 기억은 무엇인가요?

[Eun Ja Kim] 첫 학교의 기억은 엄마의 손을 잡고 운동장에 모여서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부모와 함께 했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인 것 같습니다.

[Daniel Lee] 초등학교에서 일반적인 하루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Eun Ja Kim]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보통 점심 먹고 1 시까지 학교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재능에 맞게 특별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경우는 친구들에 비해 키가 커서 육상부로 달리기도 했고, 농구선수로 학교를 대표해서 활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Daniel Lee] 당신과 당신 형제 자매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Eun Ja Kim] 아버지가 교육열이 높으시고 자녀를 잘 키우시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서울로 교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 전라도 맨 끝에서 서울로 대학 가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실패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Daniel Lee] 당신이 자라면서 목표는 어떻게 변했나요?

[Eun Ja Kim] 목포는 도시 발달이 더디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관계 속에서 소외된 부분도 있고 눈에 띄게 발전한 것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도로들은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민 오기 전 1998 년 경에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조금씩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Daniel Lee] 당신은 지역 동네와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나요?

[Eun Ja Kim] 어렸을 때 자라온 동네는 전통 가옥인 한옥이 많은 곳에서 성장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가 많아서 친구처럼 가족처럼 서로 많은 영향력을 주고 받으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Daniel Lee] 당신은 목포 출신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나요?

[Eun Ja Kim] 목포 지역에 친가와 외가가 목포에 다 있었기 때문에 안정감있게 사랑받고 자란 기억이 많습니다. 또한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목포가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도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Daniel Lee] 당신은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Eun Ja Kim] 목포가 고향이고 많은 일가 친척들이 터를 잡고있는 안정된 곳이었지만, 20 대에는 서울로 직장이나 학교로 간 친구들을 찾아가면서 서울같은 큰 도시에 가서 꿈을 펼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Daniel Lee] 당신의 가족은 딸로서 당신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했나요?

[Eun Ja Kim] 5 명의 딸 중의 둘째 딸이었는데 가정 분위기가 조용하고 암전하고 예의범절을 갖춘 정숙한 딸로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교육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의 범절, 인사성, 좋은 언어습관을 가지고 자라기를 바라셔서 그런 것들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의 가르침과 눈 높이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Daniel Lee] 당신의 어머니의 삶과 책임감이 여성의 역할에 대한 당신의 견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Eun Ja Kim] 많은 영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6 남매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같은 여성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6 명의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으면서도, 사랑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해 주셨습니다. 책임감이 강하셔서 의식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 해 주셨기에, 그것을 여성으로 보고 자란 저도 두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모습을 반영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성실하게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Daniel Lee] 당신은 남자 형제나 남자 동급생들과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고 느꼈나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한국 사회가 여성보다는 남성의 우월성과 남성이 우선적인 시대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리더는 당연히 남자가 해야 한다는 사고와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도 1 남 5 녀인데 오빠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져서 자라면서 차별성을 느꼈고, 남자에게 자리들을 많이 양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Daniel Lee] 당신은 무슨 특별한 이유 때문에 미국 파사데나로 이민을 오게 되었나요?

[Eun Ja Kim] 저는 결혼 후에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남편이 미국 파사데나에 있는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학교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Daniel Lee] 한국인 이민자로서의 경험은 당신이 기대했거나 원했던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요?

[Eun Ja Kim] 학생 신분의 남편 때문에 미국으로 오게 되서 처음에는 이민자로 미국 사회로 깊이 들어가기 보다는 학교안에 학생으로만 생활해서 안정감이 있고 환영받는 분위기였습니다.

[Daniel Lee] 미국에서 살면서 특정한 도덕관념이나 가치관이 바뀌었나요? 혹은 적응하기 위해 “백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나요?

[Eun Ja Kim]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미국사회의 다양성 속에 질서가 있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줄을 서기 기다리는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부하는 문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고 귀한 인생의 가치관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적응하기 위해 백인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인들의 좋은 점 예를 들어 매너, 배려하는 것들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Daniel Lee] 처음 미국에 올 때, 당신의 삶이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섬처럼 느낀 적이 있나요?

[Eun Ja Kim] 30 대 초반에 미국에 왔는데 모든 가족과 직장, 교회, 공동체 모든 것은 놓고 왔을 때 많은 두려움과 또한 막막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세월이 갈수록 안타까움과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도리어 한국이 낯설고 쌓아왔던 관계들 또한 한국에 있는 공동체들과도 분리된 느낌을 갖습니다. 가족을 보러 한국을 방문 하지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적구나 라는 것을 가족 안에서도 경험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홀로 섬처럼 느껴진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Daniel Lee]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Eun Ja Kim]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고립감을 안 느낄거라 생각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고립감이나 단절감을 자연스럽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단절감과 공감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 연락하고, 사진도 나누고, 일상생활 속에 있는 소식을 전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Daniel Lee]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목포 주변 섬으로 여행을 가거나 그곳에서 일한 적이 있나요?

[Eun Ja Kim]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여름마다 가족 여행을 목포 주변에 섬으로 배를 타고 많이 다녔습니다. 가족들 일가 친척들과도 2 박 3 일 정도의 시간으로 집을 빌리기도 하고, 텐트를 치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 시절에 수련회를 가까운 섬 지역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섬에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